

신도시 개발현장 한복판에 천막결사 상월선원 문열다

11월4일 봉불식 및 헌판식을 계기로 공개된 위례 상월선원 모습. 9명의 스님이 치열한 정진을 이어갈 큰 천막, 작은 천막은 스님들 곁에서 정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 뒤로 파란 지붕이 있는 곳이 상월선원 법당. 그 뒤로는 개발이 한창인 위례신도시 모습이 보인다.

하남=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간절한 서원”

기고

천막법당에 깃든 붓다의 정신



자현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본지 논설위원

스스로 버리는 낮은 실천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이 가능했듯
‘현대판 결사 운동 계승’으로
어둠 물러나며 광명 시작될 것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위례 상월선원 야외 천막 고행 결사’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스님이 ‘천막법당에 깃든 붓다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지난 2일 본지에 보내왔다. 자현스님은 기고문을 통해 “천막법당은 현대판 결사 운동의 계승”이라며 “부처님께서 최후의 유언으로 남기신 ‘방일(放逸)하지 말라’는 당부가 오늘의 위례 신도시를 땀도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고문 전문.

며칠 후면 조계종의 수행 축제인 ‘동안거’가 시작된다. 매 안거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서슬 퍼런 깨침을 찾아 내면의 여행을 떠나곤 한다. 예전에는 선원을 삼검당(尋劍堂)이라고 했다. 마음의 검을 찾아 참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처가 선원이기 때문이다. 또 선불장(選佛場)이라고도 했는데, 붓다를 뽑는 최고의 과거장이라는 의미다.

선전화의 바람 속에 명상이 현대사회의 제1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간 삶의 목적은 부나 명예가 아닌 행복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에게, 자기조절된 명상은 또 하나의 내적인 빛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을 넘어선 이웃 및 사회와 함께 하고픈 행복이라면 단순한 명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즉, 위대한 명상이 필요한 것이다.

선(禪)에는 서릿발보다 엄숙하고 죽음보다도 치열한 고뇌가 묻어있다. 이것을 넘어선 이들에게만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이 고이게 된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간절함과 고단한 노력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것은 한량없는 극기를 통

해,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정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붓다의 발밑에서 또다시 2000명의 눈 푸른 수행자가 당당한 깨침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존재의 아우성, 즉 동안거다.

추위와 삭풍이 산사를 휘감는 동안거 기간은 치열한 수행에 맞춘다.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세상을 침묵에 잠기게 하는 겨울은 구도와 수행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겨울에 하늘을 이불 삼고 대지를 안방 삼아 안거에 드는 이들이 있다.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상월선원(霜月禪院)이 그곳이다. 말이 선원이지 불편함만이 가득한 천막법당이 전부다. 그러나 이곳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간절함과 높은 서원이 총망한다.

원효의 〈발심수행장〉에는 “절하는 무릎이 얼음 같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주린 창자가 끓어질 것 같아도 음식을 구하는 생각을 내

지 마라”는 구절이 있다. 천막법당에서 하루 14시간 참선과 벗하며, 한 끼와 묵언 수행을 다짐한 이들에게는 이런 원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천막법당의 안거 대중에는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눈에 띈다. 종단의 최고 수장을 지낸 분이 낮고 찬한 곳에서 선불교의 이정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편안함에 안주하셨다면, 불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 버리는 낮은 실천이 있었으므로 불교라는 모든 중생의 행복은 비로소 가능했다.

노자는 ‘바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의 제왕(帝王)이 된다’고 했다. 또 율장에서 부처님은 낮은 리더십, 즉 존중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천막법당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실천의 장인 셈이다.

상월선원의 상월은 ‘엄숙한 달밤의 서리’를 뜻하지만, 여기에는 또 낮이 가장 짧고 어둠이 긴 동지라는 의미도 있다. 동지부터 어둠은 물러나며, 낮의 광명은 길어지기 시작한다. 해서 〈주역〉에서는 동지를 상징하는 ‘지뢰복’괘를 길상의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고려불교가 짙어졌을 때, 지눌스님은 수도인 개경에서 가장 먼 송광사로 물러나 수행결사를 일으켰다. 이 정혜결사로 인해 송광사는 고려 말에 이르러, ‘동방제일도량(東方第一道場)’ 즉 고려 최고의 사찰이라는 영예를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천막법당은 현대판 결사 운동의 계승이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며, 노년은 안주하기 쉽고 치열해지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런 점에서 자승스님의 낮추는 실천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천막결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치열했던 적이 있는가?’ 내적인 치열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공자는 안식처를 묻는 제자에게 ‘무덤만이 쉼 곳’임을 역설했던 것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최후의 유언으로 남기신 ‘방일(放逸)하지 말라’는 당부가 오늘의 위례 신도시를 땀도는 듯하다.

“천막결사 원만회향 재가불자 적극 동참”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 10월31일 만난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은 ‘동안거 위례 상월선원 야외 천막 고행 결사’가 전국 불자들의 응원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홍 회장은 이번 천막결사에 대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회 차원에서 응원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 두었다”며 “인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 (오하려 결사의 뜻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야외천막결사로 더디게 진행 중인 신도시 포교불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스님들의 치열한 수행 정진은 불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수행의 힘은 결국 포교와 전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결사를 발원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도 인연이 깊다. “신도 회장이 된 이후 많은 일을 했다”는 이 회장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다. 불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통탄노숙 야외 수행을 걱정하는 그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불교 증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추운 겨울인데다 환경도 열악해 걱정이 많다”며 원만회향을 위해 끝까지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고불문 (요약)

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위례신도시의 활랑한 트라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이곳이 붓다가 야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품어 넓고 그들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 저희에게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엔 달을 빗살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행처에 상월선원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머리를 쥐고 가사를 입던 날, 저희라고 어찌 당신의 가르침에 생명을 바치겠노라 맹세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한 그릇이면 죽할 음식에 흔들리고, 고작한 벌이면 죽할 옷에서 갑축을 탐하고, 고작한 평이면 죽한 잠자리에서 편안함을 구한 탓에 초발심이 흐려졌다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청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묵묵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그리고 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족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1월4일 위례 상월선원 봉불식 및 헌판식에서 “열악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청규를 만들어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발원에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결사대중의 뜻을 치하했다.



11월11일 상월선원 동안거 결사대중을 대표해 진각스님이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며 “비구 자승,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삼가 올립니다”라고 부처님 전에 각오를 알리고 있다.